

유동성 커진 호남민심이 대선판도 좌우

뉴스초점 정치권이 호남 주목하는 이유

호남이 정치적 호황기를 맞고 있다. 국회의장단은 물론 원내 교섭단체 3당의 대표도 모두 호남 출신이다.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여야의 호남 구애도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호남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민심에 대한 진정성 확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7일 전대를 앞둔 더민주 당권주자들은 호남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호남민심의 지지 확보에 목을 매고 있다.

최초의 호남 대표 체제로 전환한 새누리당도 호남 현안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적극적 구애에 나서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과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서진(西進)정책

여야 3당 수도권에 막대한 영향 미칠 호남 표심 잡기 경쟁
야당 텃밭 옛밭... 호남 미래 비전 만들어 낼 계기 삼아야

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호남 민심의 지지가 최소한의 존립 기반인 국민의당은 최근 호남 지지를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호남 집중' 현상은 '호남 민심의 변화'가 만들어 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기존의 '야당의 텃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치적 실용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입지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이는 두 차레나 정권 창출에 실패하고도 반성보다는 계파적 이익에 골몰한 야당의 모습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크게 확산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선거 때만 찾아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평소에는 '호남 표심이 어디 가겠어'라는 야권 주류 진영의 오만한 태도도 호남 민

심에 불을 질렀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난 19대 국회 두 차례 치러진 재보선에서 광주민심은 무소속 천정배, 전남 민심은 새누리당 이정현을 선택하며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 태풍의 진원지가 되면서 20대 국회를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호남 민심의 변화가 지역을 넘어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이끈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이라는 공감대 아래 정치적 실용 노선을 선택한 호남 민심은 정치권에 여진을 날고 있다. 과거의 정형화된 가치 구도에서 벗어나 '호남 민심의 유동성'이 차기 대

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메기 효과'를 부르며 호남의 정치적 수확량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호남의 정치적 현실은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하다가는 차기 대선에서 명분도, 실리도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냉정한 판단과 호남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축적의 과정을 통해 호남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민심이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이끌었다면 이제 호남 정치인들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과감한 도전과 후진 양성을 통해 호남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민심의 변화 이미 시작 지역장벽 급속도로 무너질 것”

이정현 새누리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호남 민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유력 호남 대선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에서는 과거와 달리 당 보다는 합리적인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5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호남에 친착한다면 호남 민심은 대선에서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차기 대선에서)호남이 과거 DJP 연합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며 “다 얻으려다 하나도 못 얻는 것 보다는 함께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정치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지역 구도에 대해서는 “호남의 순천에서 먼저 문을 열고 나서니 지난 총선 영남에서 더 많은 문이 열렸다”며 “호남 출신이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되는 등 앞으로 정치권의 지역 장벽은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밝혔듯이 인사권자가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쪼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내 비주류 인사들과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면 누가되든 끌어안고 있어야



적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안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받아들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대치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선 정당을 초월해서 역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야당의 태도는 집권 안하겠다는 태도도 평생 야당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가 내세운 서바이벌 방식의 대선 경선 풀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위한 맞춤형이라는 지적에 대해 “3~5개월 가량 지역별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며 “어떠한 기준권도 인정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많은 이들이 등 뒤에서 비웃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최고 중진회의를 해도 참석률이 저조하다”며 호남 출신 대표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민생정치를 펼쳐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



24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갤러리 부스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아트페어는 28일까지 13개국 74개 갤러리, 작가 1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등에서 펼쳐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국제아트페어 개막... 13개국 작가 참여 풍성한 미술축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제7회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 : 광주 : 16'이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식을 열고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6면>

광주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아트페어는 28일까지 13개국 73개 갤러리 부스, 114개 개인작가부스를 비롯해 비엔날레

특별전, 조형 페스티벌, '페차쿠차 광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특별전을 마련해 관심을 끈다. 한홍수·중국 왕두 작가가 참여하는 유네스코 특별전은 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유네스코에 기부해 제3세계 어린이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남은정 작가는 유네스코에 1000달러를 기부했고 프랑스 B.O.A 갤러리 등 20여개 갤러리도 동참의사를 밝혔다.

이날 개막식 후에는 운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김중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내외의 인사 400명이 참여하는 '8·24광주아트파티'가 열려 문화 예술 교류와 후원을 이끌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수소 융합얼라이언스' 참여

산자부 민관합동 발족식 '카셰어링' 정부사업 추진

광주시가 추진하는 '수소차 카셰어링 시범사업'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친환경 수소차 허브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민관 합동으로 수소 융합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민관협의체인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는 수소 전기차 보급·확대, 수소에너지 확산 등을 위한 컨트론타워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발족식에서 산업부는 광주의 수

소차 카셰어링 시범사업과 울산의 수소 택시 시범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15대, 수소차 15대 등 총 30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에너지는 그간 미래 유망 에너지로 부각됐지만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져있고 연관 업체가 다양해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이날 발족한 수소 융합얼라이언스에는 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광주, 울산, 충남 등 지자체가 참여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수소차 제조·부품사, 수소 제조·유통 업체, 수소 충전소설치 업체, 가스 업체 등이 가세한다. /최현배기자 cki@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출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통처명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료 포함) www.hera.co.kr